

한국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

— 미학적 사고의 가능성 모색

조정송* · 황기원** · 박재길***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국토개발연구원

Exploring a New Planning Paradigm for Urban Landscape in Korea : An Aesthetic Approach

Cho, Jung-Song* · Hwang, Keewon** · Park, Jae-Gil***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BSTRACT

This paper is to explore a new planning paradigm for urban landscape —not a new paradigm for urban landscape planning— in the light of environmental aesthetics. This is an endeavor to construct an alternative to the philosophical absence in the landscape profession. The landscape has been conceived of visual-oriented urban scene, and this notion is one of consequences of subject-object dualism in Western modernity project. In contrast with this convention, the authors consider urban landscape as the *aesthetic field* in which an experience of urban landscape actually works in human ordinary life and experience. To acquire an aesthetic experience in this aesthetic field, we need to replace the doctrine of disinterestedness with *engagement* and contemplation with *participation*. This concept of participatory engagement with landscape can be translated in specific and concrete ways into urban landscape planning, replacing the traditional panoramic landscape with engaged landscape. The authors approach the urban landscape from the vantage point of an aesthetics of engagement by developing the four environmental situations : the sailing ship, the circus, the cathedral, and the sunset. They may serve as useful guides in cultivating an beautiful urban landscape to replace the forces of vulgarity and monotony that depress the modern city. What is beautiful urban landscape? What makes the urban landscape beautiful? Finally, the authors suggest *identity* and *amenity* as practical concepts of urban landscape planning for an aesthetic experience.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지원(1993. 7~1997. 12)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서론

지난 몇 년간 서울은 정도 600주년이라는 기점을 계기로 삼아 다양한 행사와 계획을 추진하면서 '서울다운 서울'의 모습을 갖추고자 분주했다. 또 '남산 제모습찾기 운동'이라는 기치 하에 서울의 색깔과 정취를 되찾으려는 여러 방면의 노력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인아파트 철거(1994)와 구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1996)라는 막대한 예산의 사업으로 연결되기까지 했다. 또 서울시 조직 내에 '도시경관과'가 설치되어(1991) 도시경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시설계를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지방자치체의 실시와 함께 나름의 도시상을 정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예컨대 1990년 안산시는 시 차원에서는 최초로 '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1993년부터 제주도는 경관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도시경관, 도시미, 도시성 등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을 거쳐 이제 지난 시대의 열악했던 생활 환경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내다보는 여유를 찾고 있는 우리네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변화 조짐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조짐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싹트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중 두드러지는 난맥은, 첫째, 점증하는 도시경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수용하고 선도할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채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두번째 난점으로 지적될 만한 것은 소위 '도시경관계획'과 관련되는 개념적 혼란이다. 따

라서 도시경관계획과 도시계획, 도시설계, 상세계획, 도시조경설계 등의 개념적 구분 및 실행상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번째 문제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계획을 인도할 수 있는 철학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곧 첫째와 둘째의 문제를 낳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말하는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필요란 곧 이같은 철학 부재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그러한 철학을 '미학'적 입장에서 모색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 바탕을 둔다. 우리의 일상 삶과 유리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도시경관의 미를 탐색함으로써 이 시대 도시경관계획을 인도할 수 있는 철학적·미학적 반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한 국면으로 미학적—특히 환경미학적—사고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도시경관이라는 개념을 서구 모더니티의 한 산물로 파악하고 도시경관의 계획과 경험에 대해 미학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한국의 현재적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 현실의 도시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지배적 패러다임을 진단한다. 물론 이러한 점은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으므로,¹⁾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현재적 관점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정도에서 만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도시경관 관련 계획과 제도에 있어서 왜곡된 경관 미의 문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도시경관계획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형식과 내용을 구상하는데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그러한 종합적 계획과 제도의 수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의 뿌리를 이룰 수 있는

1) 참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I, II』, 시정연 93-R-8, 94-R-2, 1993, 1994.

철학적 배경을 미학적 시각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경관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경관계획(그것이 현재 제도화되었던 그렇지 않건 간에)이라는 어떤 계획 절차와 방법론의 기존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이라는 인간의 문화적 산물을 조작·조절(계획)함에 있어서 우리를 지배해 왔던 주된 관념과 관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를 탐색해 보자는 데 본 연구의 의도가 자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시도는 4장에서 정점을 이룬다. 우리는 그러한 사고의 중심에 '미'의 문제를 놓는다. 이 때 우리가 말하는 미는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 표면의 아름다움을 관조함으로써 보는 이의 눈에 보기 좋은 분리적 대상의 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 삶과 연속적이고 우리의 모든 경험 영역과 합일되는 화해와 매개의 미이다. 우리는 도시경관을 미적 장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또 그러한 미적 장에서 일어나는 미적 경험을 '참여'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도시경관의 경험과 계획을 검토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2. 도시경관과 미학

1) 도시경관 : 모더니티의 산물

우리말 경관(景觀)에 해당하는 영어인

landscape은 '한정된 토지,' '경치,' '만들어진 환경,' '지역' 등으로 정의되는 다의적 개념이다.²⁾ 경관의 다의적 개념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경관을 경치로 보는 것이다. 이는 17세기에 회화의 새로운 장르로 등장한 풍경화의 영향에 기인한다. 이태리 풍경화는 종래의 *landcipe*가 지시하던 토지라는 현실의 세계로부터 시각적 감상을 위한 이상적 경치로 경관 개념의 내포가 변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관은 생존과 직결된 환경이라는 속성을 상실하고 '눈에 보이는 사물의 외관,' 특히 2차원적으로 구성된 회화적 효과를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실체가 아닌 '이미지'로서의 경관은 다시 풍경식 정원이라는 구체적 형태로 현실 속에 구현된다.³⁾

이같은 경관 개념의 출현은 서구 사상사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의 분리로 대별되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의 한 산물이다.⁴⁾ 즉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합리적 인간의 도구주의적 이성이 전횡의 권력을 획득하던 시기, 즉 근대 과학주의와 계몽사상을 밀바탕으로 한 서구 모더니티의 출현과 경관 개념의 발생은 평행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경관이 주체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이같은 이원론적 사고는 인간-자연, 과학-예술, 남성-여성, 도시-농촌, 건축-경관 등의 이분법적 대립 쌍을 낳았으며, 자연, 여성, 경관 등은 이러한 틀 속에서 주체인 인간으로부터 소외당하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도시가 인간 문화의 극점이 되어 갔다는 점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본래 농촌의 이상적 자연과 관련되던 개념인 경관은 문화의 정점인 도시 속에 적용되지만 유용성과 기능성에 주로 무게를 둔 모더니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소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

2) 참조. Marvin W. Mikesell, "Landscape,"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III, 1968, pp.575-80; 황기원,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17(1), 1989, pp.55-68.

3) 참조. Gina Crandell, *Nature Pictorialized - "The View" in Landscape Hist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4) 참조. Eric Hirsch, "Landscape: Between Place and Space," in *The Anthropology of Landscape*, Eric Hirsch and Michael O' Hanlon, eds. (Oxford: Clarendon Press, 1995), pp.1-30.

한다. 또 도시경관이 고려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눈에 보기 좋은 경치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경관은 '도시의 보기 좋은 경치,' 또는 '미관'이라고 정의되어도 무방한 역사를 걸어 온 것이다. 이 때 보기 좋다는 반응은 그 도시가 '살기에도 좋다'는 상황을 조성함에 있어서 필요조건이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또 보기 좋은 경치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도시경관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사는 내부자의 관점이 아니라 밖에 멀리 떨어져서 경관을 관조하는 외부자의 관점인 경우가 다수이다.⁵⁾

이러한 점은 도시경관 개념의 다의적 성격을 검토해 보면 쉽게 드러나는데, 특히 도시계획·설계, 조경, 건축 등의 분야에서는 도시경관을 '도시의 경치'로 파악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때의 도시경관은 인간의 조정에 의해 형성된 경관으로서 특히 외부자의 시각을 위주로 조망되는 경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⁶⁾

개념적인 차원에서건 현실의 국면에서건 간에 도시경관은 이분법적 사고의 희생물이 되어 왔으며, 또 그것이 고려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각적 장식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특히 도시경관이 미와 관련될 때는 이중의 왜곡을 겪기 마련이었다. 우선 도시경관이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데다가, 근대 미학의 성립 이후 미 역시 여타의 경험 영역과 유리된 특유의 경험 영역으로 우리의 사고 속에 설정되었고 또 그러한 미적 경험은 객체에 대한 주체의 무관심적 관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외부자적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2) 도시경관과 미학

우선 근본적인 의문부터 던져 보자. 미학적 사색이 도시경관의 계획과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인문학적 사고가 현실의 실천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결국 미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미학의 영역을 예술 작품이나 예술 행위에 국한시켜 생각한다면, 미학이 관여할 수 있는 도시경관이란 기껏해야 개별 건축물 정도에 한정될 것이다. 그러나 건축이 도시경관 전체에 걸쳐 있는 것이고 또 미학의 대상이 미 일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미학적 사색은 장대한 자연의 미와 도시경관의 미 전체를 포함하는 영역을 갖게 된다.⁷⁾ 또 인간 생활의 아름다움과 행위의 아름다움도 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면, 현대의 인간 생활이 전개되고 있는 도시야말로 창조적 미학의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될 것이며, 슬한 문화와 역사가 융해되어 있는 도시경관이야말로 미학이 주목해야 할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19세기 이후의 근대 미학은 인간 이성의 산물인 예술만을 그 중심에 놓는 전통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분리적 태도는 예술이 행해지는 인간 삶의 조건을, 또 그러한 조건의 모태인 도시라는 환경을 소외시키는 역설을 낳고 말았다.⁸⁾ 우리가 이 연구에서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으로 미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시가 인간 정주의 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인간은 늘 도시 환경을 보다 낮게 발전시켜 안전하고 쾌적하며 살 만한 도시 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므로 도시는 기능적이어야 함은 물론 정주 공간으로서

5) 경관의 미적 경험에 있어서 내부자(insider)-외부자(outsider)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Steven C. Bourassa, *The Aesthetics of Landscape* (London: Belhaven Press, 1991), 1장과 5장.

6) 도시경관의 다의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황기원·유병림·이민우, "한국 항만도시의 도시경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4), 1993, pp. 76-92.

7) 참조. 민주식, "도시환경의 미학," 『미학』 18집, 1993, pp. 45-46.

8)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에서 상세히 전개된 바 있다. 조정송·배정환, "환경미학과 '참여' 개념의 문제," 『미학』 19집, 1994, pp. 225-59.

정서적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미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계획의 미적 측면을 강조한 선구자로 지테(Camillo Sitte)를 들 수 있다. 1889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는 도시 광장의 기능과 비례, 그 광장에서 있는 기념 조형물과 교회들에 주목하여 도시의 이면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밝혀내고 있다.⁹⁾ 그의 주장의 요체는 도시계획이라는 행위가 그 당시에 대두되던 기능적 기술이 아니라 창의적 예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전쟁의 상처를 씻고 새로운 도시상을 정립하고자 했던 19세기 말엽 미국의 '도시미운동'(City Beautiful Movement)¹⁰⁾ 및 20세기 전반기의 도시디자인(civic design) 전통 등도 미의 관점에서 도시를 다룬 귀중한 선례이다.

하지만 대체로 인간의 전통은 의복이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노력에 비해 도시경관과 같은 공공물의 미적 측면에는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여 왔다. 미적인 면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사치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오감에 의해 지각되는 환경의 질을 복지라는 측면에서 중요시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¹¹⁾ 미적 관심에 의해 지각되는 도시경관의 미적 경험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 절에서 제기한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시경관이라는 측면에서도 미학은 기여할 수 있다. 모더니티 프로젝트의 우산 아래에서 지내 온 지난 2세기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비판이 생태학과 현상학이라는 두 가지 대안을 주축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관 관련 학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관생태학'¹²⁾과 '현상학적 장소 연구'¹³⁾ 등이 주목을 끌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

만 "생태학은 객체의 문제를 새롭게 총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고 현상학은 주체의 문제를 존중하고 통찰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모더니티의 이분법을 초월하기보다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¹⁴⁾

주체와 객체의 문제를 다 포괄하면서 양자의 간극을 초월할 수 있는 관점이 경관과 관련된 사고에도 필요하며 또 경관의 계획이라는 인간 행위 역시 그러한 철학에 바탕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학은 도시경관의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다. 미학은 서구 근대의 산물인 주체-객체의 논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것을 초월할 가능성을 본래부터 가지고 사상사 속에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미학에서 객관주의나 주관주의 각각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어떤 경관을 보고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경관이 어떤 고유한 미적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또 우리가 어떤 심적 상태를 가지고 그 경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도 아니다. 요컨대 경관의 미적 경험이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도시경관이 안고 있는 주객이원론적 사고, 외부자의 분리적 입장, 시각중심적 장식주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로 미학을 동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미학은 예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서구의 근대 미학이 아니다. 인간의 삶과 행위, 또 그것을 담는 도시와 자연, 또 그것의 문화적 반영인 경관 모두를 포괄하면서 기존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도시의 미학, 경관의 미학, 도시경관의 미학, 환경의 미학,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미학이다.

9) 참조. Camillo Sitte, *The Art of Building Cities, City Planning According to Artistic Principle*, trans. Charles T. Stewart (New York: Reinhold, 1945).

10) 참조. William H. Wilson, *The City Beautiful Movement*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11) K. Aschenbrenner, "The Coming of Supremacy of the Aesthetic," *Diogenes* 50, 1975, p. 41.

12) 예컨대, Richard T. T. Forman & Michel Godron, *Landscape Ec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6).

13) 예컨대, Yi-Fu Tuan, *Topophilia*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4).

14) Augustin Berque, "Toward a Theory of the Environmental World," *Spazio e Societa* 64, Oct-Dec. 1993, pp. 35-36.

3) 도시경관의 미학 : 몇 가지 선례

지금까지 도시경관의 미와 관련된 연구들은 도시미관의 향상이라는 목적 하에 시각적 측면과 정책적·법적 측면, 경관관리와 평가를 위한 분석과 규제 방법의 측면 등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도시경관을 일상의 미적 대상으로 삼아 그 미적 가치와 내용을 살피고 도시경관의 미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학적 맥락에서 도시경관에 접근하고자 한 예는 거의 없었다. 일단 우리는 도시경관의 미학을 논함에 있어서 이미 1950년대 이후부터 영미권에서 간헐적으로 논의되어 온 몇몇 연구 성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존스는 1950년대의 미국 신도시들을 비판하면서 도시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이며 미적 대상임을 논증하고, 또 미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말하는 오감을 동원한 총체적 지각과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¹⁵⁾ 한편 바쉬는 계획과 설계에 부적절한 미학 이론을 도입하면 한정된 도시경관의 자원을 낭용할 우려가 있다고 논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계획과 철학적 미학의 만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¹⁶⁾

레이더와 제섭은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미학적 패러다임의 전이를 “구성에서 통합으로, 자연에 대한 지배에서 조화로, 또 양적 확대에서 질적 안정화”라고 요약한 바 있는데,¹⁷⁾ 이는 본 연구의 기본 입장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우리는 또한 도시의 미는 개별 가로나 공원 또는 도심의 디자인에 대한 고려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윌리엄스의 연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도시경관

이 시각적으로 무질서하며 지루한 반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적 만족이란 기대도 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시민들은 열악한 도시경관에 대해 미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역설한다. 이런 난맥을 딛고 도시를 미적으로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는 이렇게 제시한다 : “(1)도시에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중세도시의 시각적 위계와 같은 사회적·문화적 패턴을 결정하고 언어의 분명한 표현을 강조해야 한다. (3) 시민 의식은 도시의 미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민의 자긍심은 도시에서 발견되는 미적 만족의 정도에 달려 있다.”¹⁸⁾

한편 부차드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도시들이란 접근성이 좋고 매력적인 요소가 많으며 일반적인 관심거리가 많은 도시라고 전제한다. 또 그는 미래의 도시 미는 경제적 변형보다는 ‘도시의 개성’에 달려 있으며 시각 외에 모든 오감을 중시해야 한다고 논증한다.¹⁹⁾

이상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연구들은 도시경관과 미학을 연관시키는 새로운 입장을 선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각중심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의 원인 중 하나는 왜곡된 경관 개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관은 지반(land base)과 지피(land cover)로 구성되지만, 경관과 경치를 동일시하는 일반적인 관점은 지피 즉 경관의 겉모습에만 비중을 둔다. 지반과 지피 모두를 포괄하는 경관은 환경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존의 경관 개념을 환경과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관미학의 한계를 극복할

15) Barclay Jones, “A Prolegomena to a Study of the Aesthetic Effect of Cities,”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18(4), 1960, pp. 419-29.

16) David Basch, “The Uses of Aesthetics in Planning: A Critical Review,”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6(3), 1972, pp. 39-55.

17) Melvin Rader and Bertram Jessup, “Art and the Environment,” in *Art and Human Valu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6), pp. 372-85.

18) S. H. Williams, “Urban Aesthetics: An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ities,” *Town Planning Review* 28(2), 1954, pp. 95-113.

19) J. E. Burchard, “The Urban Aesthetic,”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 Social Sciences*, Nov. 1957, pp. 112-22.

수 있는 환경미학(environmental aesthetic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미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진행되어 온 몇 가지 연구 성과들에서 도시경관과 관련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²⁰⁾ 특히 아놀드 벌리언트의 환경미학은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을 모색함에 있어서 합의하는 바가 크다.

벌리언트의 이론을 구성하는 주된 개념은 '참여' (engagement)인데, 그는 무관심적 태도나 관조를 전제로 한 전통적인 미학의 기본 가정에 도전하여 참여가 미적 경험의 전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때 그러한 참여가 일어나는 곳으로 '환경'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러한 환경에서의 미적 지각과 경험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²¹⁾

벌리언트가 환경미학을 전개하는 기본 축으로는 '참여' 외에도 '미적 장' (aesthetic field)과 '기술적 미학' (descriptive aesthetics)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는 '미적'이라는 방식의 고유한 감각 능력이 존재한다는 신념 하에 대상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관조하는 태도, 즉 무관심성에 기초한 전통적인 미적 태도론은 우리의 미적 경험을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논박한다. 이러한 비판의 결과는 '미적 장'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되는데, 미적 장이란 미적 경험이 일어나는 총체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에서의 미적 경험은 고립된 지각자의 관조적 경험이 아니라 지각자의 경험과 예술가의 활동 모두가 지각적으로 통합된 경험이 된다. 그러하기에 미적 장은 곧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은 유기체적 인식, 의식적 의미와 비인식적 의미, 지리학적 위치, 물질적 존재, 개인적 시간, 운동 모두의 연합체로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상 생활의 장인 것이다. 인간과 분리된 환경이란 존재하

지 않는다. 그 대신 완전한 인식과 포괄적 지각과 의미를 포함하는 참여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미적 경험은 '분리적' 경험이 아니라 '참여적' 경험이며, 이러한 참여 속에서 미적 차원은 확장되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가 환경에서 지각할 수 있는 미란 문화적 미의 열개이며, 이러한 미의 지각과 경험을 설명하고 고무할 수 있는 방법이 곧 '기술적 미학'이라는 것이 벌리언트 이론의 주된 구조인 것이다.

벌리언트의 환경미학은 미적 경험론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무관심성과 관조 개념에 반대하고 '참여적' 미적 경험론을 구축함으로써 도덕적 영역이나 지적 영역과 분리되지 않은 미적인 것의 영역, 즉 일상 생활 속의 미를 환경미학 연구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경관의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여'는 경관에 대한 감상과 평가의 제 이론에 수정을 요구하는 개념인 것이다. 또한 벌리언트의 참여미학은 우리에게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2세기간 무관심성과 관조의 미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또 여타의 감각보다는 시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자연과 도시의 경관을 구성하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은 인간이라는 주체와 경관이라는 대상 사이의 분리를 가져왔고 내용과 의미보다는 형식과 장식에 몰두하는 난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주객의 합일과 감각의 연합을 주장하고 있는 벌리언트의 참여 개념은 도시경관의 이론과 계획에 반성의 마당을 펼쳐 주고 있음은 물론 대안 모색의 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4장에서 정점을 이루게 될 우리

20) 하지만 환경미학 전반의 연구 동향을 검토하는 일은 본 연구의 의도에서 다소 벗어난다. 대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문환, "환경미학의 이론적 과제: 자연미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실』 22호, 1994, pp. 266-77; 배정환, "환경미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1960년대 이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예술문화연구』 6집, 1996, pp. 103-30; 조정승, "환경설계와 미학: 그 오늘과 내일," 『터전』 3, 1995, pp. 44-47.

21) 참조. Arnold Berleant, *Art and Engagement*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1991);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1992); *Living in the Landscape: Toward an Aesthetics of Environment* (Univ. Press of Kansas, 1997).

의 고민과 모색은 벌리언트의 입장과 많은 부분에서 교집합을 갖는다. 하지만 그것은 벌리언트의 환경미학을 등에 업고자 하는 기도는 아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여러 학문 분과가 동참하고 있는 모더니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또 모더니티의 우산 속에서 형성되어 온 도시경관과 미학의 문제에 대한 반성과 반전의 장을 펼치고자 하는 바람의 한 단면인 것이다.

3. 현행 도시경관 관련 제도·계획의 문제

1) 도시경관 관련 제도 및 계획의 현황

도시경관 관련 제도 및 계획의 현재 수준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물론 그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선행 연구의 성과에 위임하기로 한다.²²⁾ 대체로 우리 나라에서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후반 서울 올림픽 개최와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비로소 대동하여, 종래의 개발 및 성장 위주의 도시 정책 속에서 회생되었던 도시경관에 대한 문제 의식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의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에서는 도시경관의 개선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1992년에는 서울시에서 경관심의를 도입하여, 남산 경관 관리구역 내 건축물, 아파트(11층 이상 300세대 이상), 가로시설물 및 도시시설(교량, 육교, 옹벽, 보도, 가로시설물 등), 북촌 마을가꾸기사업 등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1993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제 24조) 내에 경관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는 성과를 거

두기도 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종합적인 도시경관 계획·관리 제도 및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개별적인 법규와 제도의 적용을 통해 도시경관이 계획·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경관 관련 제도와 정책은 계획적 관리/유도(도시경관 계획의 수립), 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제도(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등으로 범주화하여 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²³⁾ 또한 이 범주를 참고로 하고 관련 법규의 측면을 보태 (1)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방식, 도시경관을 이루는 (2)개별적 물적 요소를 규제하는 방식, (3)영향평가 및 심의에 의한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토지이용의 규제는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기초한 지역지구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건축물이나 가로 등과 같이 도시경관을 이루는 물적 요소에 적용되는 개별법으로는 건축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런 개별법들은 건축물계획,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계획, 문화재보전계획 등으로 구체화된다. 영향평가 및 심의에 의한 경관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경관평가,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 등이 포함된다.²⁴⁾

2) 관점의 현재 수준

도시경관 관련 제도 및 계획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간략히 검토했던 현행 관련 법규에서 경관의 개념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22)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한배, "한국 도시경관의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23) 이 세 가지 구분은 다음 논문을 따른 것임. 임승빈, "도시경관 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책성 회복과 조경의 과제』를 위한 세미나 논문집(한국조경학회, 1995), pp.25-38.

24) 특히 제주도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관영향평가는 우리나라의 경관 관리 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성준,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관점이 도출되는데, 이 관점을 요약하면 “도시경관을 (1)보전된 자연 환경의 외관, (2)개발된 인공 환경의 외관, (3)인공물의 수경”이라는 세 가지로 개념화할 수 있다.²⁵⁾

(1) 보전된 자연 환경의 외관

이 경우 도시경관은 도시 내의 자연 환경의 ‘외관’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도시 내에서 개발 압력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점차 소멸하고 있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면, 그 자연 환경의 외관인 도시경관이 향상된다는 식의 제도가 발생한다. 물론 여기에는 자연 환경은 경관적으로 양호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한 도시계획제도는 상당한 면적을 가진 잔존 녹지를 보전(신규 훼손 방지)하거나 개선(잔존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지구, 시설을 도시 계획에 의거해 지정하거나 설치한다.²⁶⁾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에서는 도시경관의 양이 많지 않고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는 주로 도시경관의 ‘개념’에 관련된 것들로, 개념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자연환경을 자연처럼 보이는 경치 정도로만 파악하는 후진적 관점이 드러난다.

(2) 개발된 인공 환경의 외관

이 경우 도시경관은 개발된 인공 환경의 외관이라는 개념이다. 이 때에는 도시경관이라는 용어 대신 주로 ‘미관’이 사용되고 있어 앞의 경우와 대비된다. 미관이라는 개념 밑에는 기존의 인공환경의 전반적 양상이 양호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할 때 도시계획 제도는 인공 환경을 구성하는 개별 건축물에 관한 통제를 위주로 한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개별 형태보다는 집합 형태라는 모순을 갖는다.²⁷⁾

이 경우에도 도시경관과 미관을 혼동하는 개념의 혼란 문제가 발생하며, 또 개별 건축물의 형태 위주로 규제하며, 집합 형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임의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경관 관련 제도는 도시경관을 단지 시각적 대상으로 전제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로 인간을 설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련 제도와 계획은 주체로부터 분리된 객체로서의 도시경관을 시각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도시경관계획·관리는 지역지구제에 의한 규제 및 행위 제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경관계획의 수립시 주민 참여의 기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현재적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이용 상에서는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를 이분법적으로 보아 지역과 지구로 구분하며, 지역지구제 또한 자연적인 요소보다는 인공적인 요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토지이용 규제와 건축 규제에 의해 일괄적으로 용도와 형태를 제한한 후 부가되는 장식적 요소로 경관을 취급하여, 도시경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경관에 대한 규제는 원경에 대해서는 조망(스카이라인)을, 근경에 대해서는 주요 경관 요소(건축물의 정면, 대지 안의 조경, 문화재, 옥외광고물, 미술장식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원경과 관련된 규제는 시각적인 조망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일상 생활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넷째, 대상 경관의 주민들이 경관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이는 곧

25) 이러한 논의의 일면을 다음 논문에서 개진한 바 있다. 황기원, “도시경관과 도시계획,” 『한국조경학회지』 21(3):117-21. 본 논문에서는 수경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위의 (1)과 (2)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26) 참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15-4, 도시계획법 18-4, 도시공원법 3-3, 도시공원법 10.

27) 참조. 도시계획법 18-2, 동시행령 16-2, 도시계획법 시행령 16-1.

과시적, 화장술적 경관계획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3) 새로운 사고의 요청

물론 위에서 검토한 현행 도시경관 관련 계획과 제도의 문제가 미학적 사고의 부재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만 아니라 오류이다. 우리가 모색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관점과 대안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또 하나의 대안적 시각임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현행 도시경관 관련 계획과 제도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계획 시스템과 법제도의 부재 및 당면 문제해결 중심적 양상은 종합적·미래지향적 도시경관계획과 조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도시경관계획이 일정 정도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들을 대안적 선택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²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적 현실에 걸맞는 도시경관계획 제도의 법체계와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내의 경관평가 부분의 강화, 체계적인 경관영향평가, 도시설계 제도의 개선,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를 통한 경관 조절 등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해법을 통해서도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구성해야 한다. 또 현재 여러 도시들은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에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기존의 노력들을 인정한다는 전제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미학적 사고를 제시하는 이유가 투명해져야 한다.

그러한 이유는 첫째, 도시경관의 난항의 이면에는 철학의 부재가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은 미의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시경관은 우리의 왜곡된 미학관을 반증하는 구체적 현상이자 대상이며 또 우리 일상 생활과 행위의 미가 반영되는 중요한 미적 대상이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미학은 주체와 객체 모두를 포괄하는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4.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1) '미적 장'으로서의 도시경관

아놀드 벌리언트는 『미적 장』에서 “미적 경험에 대한 모든 대리이론(surrogate theory)들을 배제하고 미적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장치를 제시하고자 한다.²⁹⁾ 즉 그는 대부분의 미학 이론들이 예술을 설명하기 위해 예술 경험 자체가 아닌 그 외부의 어떤 것들에 주목하여 대리이론에 의해 대치된 미적 경험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미적 장’ 즉 총체적 인간 경험 속에서 예술 경험이 발생하는 상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 격리된 영역이 아닌 일상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미적 경험의 존재론적 위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존 듀이와 일맥상통한다.³⁰⁾

무관심성, 관조, 미적 태도론, 형식론 등에 의해 지지되어 온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관념은 근대적 개념의 예술의 위상을 확립시키는데 큰

28) 참조. 「千葉市 都市美 基本構想」(1980), 「廣島市 都市美計劃」(1981), 「神戸市 都市景觀形成計劃」(1982), 「盛岡市 都市景觀形成基本計劃」(1984), 「名古屋市 都市景觀基本計劃」(1987) 등.

29) 참조. *Aesthetic Field*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1970).

30) 이하 듀이의 입장에 대해서는 듀이의 저작 외에 다음 문헌을 2차 자료로 참고함. M. C. Beardsley, *Aesthetics from Classical Greece to the Present*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ch. 12; 오병남, “현대예술의 성격과 미적경험에 관한 연구,” 『민병태 박사 화갑기념논총』, 1973.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예술을 인간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지하다시피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은 이와 같은 예술의 자율성 즉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관념에 대한 공격이다.³¹⁾ 즉 듀이 미학 사상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인간의 경험을 구분하여 그 중 어떤 것을 ‘미적인 것’이라고 상정하여 그것을 예술과 관계시키는 미학적 입장에 반대하는 점에 있다.

듀이에 의하면 “경험”이란 “유기체로서의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상호 관련을 맺는 작용 과정이다.” 그러므로 경험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흔히 겪는 경험은 불완전하다. 어떤 사실들이 경험되기는 하나 그 경험들의 대부분은 산만하게 분산된 경험인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험과는 달리 경험된 일이 그 과정을 다 거쳐 완성에 이를 때 우리는 이른바 ‘하나의 경험’ (an experience)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때에만 경험이 내면적으로 통합되고 경험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다른 여러 경험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며, 경험 각각이 그 고유의 개성적 특질과 자족성을 갖는다고 듀이는 말한다. 이러한 경우의 경험이 ‘하나의 경험’인 것이다.

듀이는 어떠한 경험든지 그것이 ‘하나의 경험’인 한 미적인 특질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지적 경험이나 실천적 경험도 그것이 ‘하나의 경험’인 한 미적 특질을 갖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흔히 생각되어 온 것과는 달리 미적인 것의 적은 실천적인 것도 지적인 것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경험을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경험의 단순함과 단조로움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듀이는 예술이란 이와 같은 ‘하나의 경험’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경험과 예술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듀이의 경험 개념은 예술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전통적인 미적 경험의 입장에서 재조

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듀이의 견해와 유사하게 벌리언트는 “미적”이라는 말은 미적이라는 별도의 경험의 한 종류(kind)를 의미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경험이 발생하는 한 방식(mode)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파악한다. 즉 미적 경험은 “the aesthetic experience”가 아니라 “aesthetic experience”라는 것이다.³²⁾

그렇다면 미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경험이라는 의미로서의 미적 경험이 다른 경험과 구별되고 있는 점은 무엇 때문일까? 듀이는 ‘하나의 경험’은 모두 미적일 수 있으나 특히 ‘지각적’인 ‘방식’의 경험은 다른 경험들과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가 말하는 ‘지각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감각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적 경험이란 사유나 욕망의 결핍 때문에 지적 경험 혹은 도덕적 경험과 구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지각적인 경험 내로 완전히 통합되는 방식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듀이에게 있어서는 미적 지각은 곧 수동적인 관조 상태라는 전통적인 미학적 입장이 지각자의 능동적 주목과 참여의 반응으로 대체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적 경험은 활동과 지각—듀이의 언어를 따르자면 행함(doing)과 겪음(undergoing)—이라는 두 계기의 상호 역동적 교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삶에서 분리된 예술은, 듀이에게 있어서는 삶과 연속적인 것으로 그 개념이 전환된다.

벌리언트는 듀이의 입장을 확대하여 미적 경험은 예술 대상, 지각자, 예술가, 행위자 등이 통일된 경험의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즉 미적 경험론은 작품과 지각자를 구분해 놓고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얻어진 정적인 미적 관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미적 경험이 일어나는 ‘미적 장’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벌리언트는 다음과 같이 ‘미적 장’의 개념을 정의

31) 참조. John Dewey, *Art as Experience* (New York: Allen & Unwin, 1934).

32) *Aesthetic Field*, p. 93.

한다 : “대상과 행위와 예술의 경험이 발생하는 총체적 상황, 곧 이들 모든 외연과 그 이상의 것을 포괄하는 장치, 이를 가리켜 나는 미적 장이라고 칭한다. 이 미적 장이란 예술 대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경험되는 맥락이다.”³³⁾

요컨대 ‘미적 장’이란 미적 경험이 일어나는 상황(situation)을 말한다. 그러나 미적 경험은 고립된 지각자의 관조적 경험이 아니라 작품을 매개로 자신의 경험 속에 예술가의 활동마저도 지각적으로 통합시키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은 또한 예술가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미적 경험이란 결국 이러한 ‘미적 장’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참여의 의미로 미적 경험의 방식이 변화하는 것은 전통적인 미학에서는 별로 큰 이론적 관심의 대상이지 않았던 환경과 경관의 측면을 미학 연구의 중심적인 것으로 부각시켜 놓기에 이른다. 벌리언트는 일상적인 경험, 일상적인 참여가 일어나는 장인 ‘환경’을 미학의 주된 주제로 삼게 되는 귀결에 이르는 것이다.

‘미적 장’은 도시경관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도시경관은 총체적 삶과 예술의 장이자 모든 인간 경험이 일어나는 기반으로 일, 가정, 교육, 상업 등과 같은 다양한 실천적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이며, 특히 미적 행위가 일어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적 장으로서의 도시경관은 도시예술계가 성립하는 도시문화환경이며, 이러한 미적 장에 거주하는 시민은 도시경관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때 시민들은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환경의 일부로서 일상의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미적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미적 지각의 존재 방식과 그에 따른 미적 경험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2) 도시경관의 미적 경험 : 참여와 일상성

도시경관이 미적 장이어야 한다면, 또 미적 장일 수 있다면, 그러한 도시경관에서 일어나는 미적 경험의 필요충분조건은 ‘참여’이다. (1)미적 장으로서의 도시경관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해당된다면, (2)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참여의 미적 경험은 우리의 행위와 반응에 해당된다.

하지만 경관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이래로 우리의 도시경관은 (1)과 (2)의 측면 모두에서 왜곡된 파라다임을 겪어 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 의식이다. 특히 도시경관이 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교의가 도시경관의 계획과 미적 경험을 지배해 왔다.

플라톤의 『향연』 이후 서양의 철학과 미학은 시각에만 주로 비중을 둔 채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의 감각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감각들을 분리시켜 버린 이러한 전통은 무관심성, 관조, 대상화(객관화) 등의 미학 개념을 낳고 말았는데, 이들 개념만으로는 도시 경관의 미적 경험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경관의 경험은 감각적인 것만은 아니며, 그것에는 문화와 역사가 개입된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경관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참여를 뒷받침해 줄 개념이나 이론적 전통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이나 도시 설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평면, 입면, 투시도, 모형, 조감도 등은 참여자의 지각이 아닌 구경꾼의 시각만을 반영하는 무관심적 관조(disinterested contemplation)가 단적으로 반영된 기법이며, 조경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를 짊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적 장으로서의 경관은 제 감각 전체의 지각을 요청하는 살아 있는 경관이다. 우리는 데카르트적 주객이원론을 초

33) 같은 책, p.47. 벌리언트는 미적 장을 구성하는 미적 요소로 예술 대상, 지각자, 예술가, 행위자를 들고 있다. 이들 네 요소는 미적 장 내에서 상호 교류하면서 기능한다.

월하여 인간과 분리되지 않는 경관의 본질을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입론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틀의 일면을 벌리언트의 참여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벌리언트가 말하는 ‘참여’를 도시경관의 미적 경험과 관련시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³⁴⁾ 첫째는 “일상적 삶과의 연속성”이다. 일상 생활의 여러 요소들이 미적 경험 내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관 관련 계획과 사업들은 대부분 큰 규모의 건축물과 기념물 또는 원거리의 조망과 관련되는 것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일상적인 도시 생활과는 무관한 경관인 경우가 많고, 그러한 곳에서의 미적 경험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우리는 참여 개념을 통해 경관과 우리 삶을 일상성의 경계 내로 끌어들이어 만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지각의 통합”이다. 모든 감각이 모든 미적 경험에서 동시에 기능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미학자들이 간과해 온 공감각(synaesthesia)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경관 자체가 시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발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또 시각 위주의 도시 문화가 팽배해 왔다는 점에서, 도시경관 관리와 계획의 주류를 시각 위주의 장식과 조절이 차지해 왔다는 점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도시경관 지각의 감각적 영역은 시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도시 생활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자. 우리는 눈을 통해서만 경관을 경험하는가?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눈을 통한 지각만을 스스로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도시경관의 미적 경험에 필요한 것은 모든 감각이 연합된 공감각이며, 공감각을 동원하여 경관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관조가 아니라 참여가 요구된다.

셋째는 “대상과 지각자의 합일과 참여”이다. 이는 “예술은 대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구성된다”는 “미적

장”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도시경관이 건축물과 구조물, 도로와 가로, 오픈스페이스와 녹지 등 정형화된 몇 가지 대상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한다. 또 그러한 대상을 배치하거나 재배열하고 계속 돌보는 일에 계획과 관리의 주안점을 둔다. 하지만 도시경관의 경험은 그러한 대상이 있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는 그러한 대상을 경험하고 지각하는 주체가 필요한 것이다. 즉 미적 장으로서의 도시경관은 대상과 경험 주체의 합일과 참여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부재는 결국 오늘날과 같은 대상과 주체의 상호 소외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경관의 진정한 미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관심적 관조라는 전통적인 미학의 교의를 ‘참여’ 개념으로 대치할 필요가 있다. 참여의 미학이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새로운 미학으로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밝히기 위해서 도시경관의 계획과 미적 경험을 관조적, 능동적, 참여적 모델이라는 세 유형으로 구분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대체로 관조적(contemplative) 패러다임이 경관 경험의 오랜 기준이 되어 왔다. 이는 고전 철학에서 비롯되어 현대 미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도로서, 경관을 대상화하여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시각적인 측면으로만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관심적 관조론이 건축, 조경, 도시설계 등 환경설계 전반에 대한 논의의 암묵적 파트너가 되어 온 것이다. 서구의 많은 건축, 르네상스기의 이태리 정원, 프랑스의 정형식 정원, 원경의 파노라마와 비스타를 중요시하는 경관설계, 방사형과 격자형 도시설계 등은 모두 외부자의 시각적인 국면만을 염두에 두는 관조적 태도를 반영한다. 하지만 눈은 공간 지각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우리는 실제로는 온 몸으로, 공감각적으로 경관을 지각하고 경험하지 않는가?

관조적 모델이 이 도시에 낳은 경관은 파노

34) 벌리언트의 ‘참여’ 개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Art and Engagement*, 1장과 2장.

라마 경관으로 대표될 수 있다. 파노라마 경관은 경관의 경험에 있어서 물리적 거리와 폭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찰자(주체)와 경관(객체) 사이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시각적 경험이 우세하게 된다. 이러한 경관은 기념비적 규모, 대칭 구조, 기하학적 균제와 조화 등을 통해 쉽게 지각된다. 파노라마 경관은 시각적으로만 열려 있고 접근은 불가능한 지역이다. 관찰자와는 연속성도 없고 접근 수단도 없는 권위적인 정부 건물이나 거대한 스케일의 기념 건축물 등에서 우리는 파노라마 경관의 특징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특별한 건축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파노라마 경관은 이미 전 세계 산업사회의 대도시들을 뒤덮고 있다.

(2) 최근 들어 행위와 기능에 초점을 두는 능동적(active) 모델이 경관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데, 이는 실존철학, 현상학(메를로-퐁티),³⁵⁾ 프래그머티즘(존 듀이),³⁶⁾ 지각심리학(제임스 깁슨)³⁷⁾ 등에 철학적 뿌리를 두는 경향으로서 서구의 전통적인 심신(주객)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능동적 모델은 관조적 접근과는 달리 경관 속에 거주하는 인간의 '신체'를 중요시한다. 메를로-퐁티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세계란 내 앞의 무엇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며,지각은 신체에서 비롯된다"³⁸⁾는 것이다. 능동적인 경관 경험이라는 개념이 잘 드러나는 사례로는 건축의 내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전통 건축을 들 수 있으며, 미국의 조경가 중에서는 로렌스 할프린의 디자인 방식이 능동적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능동적 모델은 관조적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고는 있지만 또 다른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지각 주체인 신체만으로는 경관 경험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경관은 지각 주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으로 우리의 경관이 우리의 행동과 경관에의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3) 앞의 두 모델의 한계는 우리로 하여금 참여적(engaged participatory) 모델에 주목하게 한다. 참여적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구경꾼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마치 무대 위의 댄서처럼 경관 속에서 행위자가 된다. 우리의 신체가 경관 속으로 녹아들며, 경관의 미적 경험에는 시각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감각이 동원된다. 참여적 경관의 핵심은 인간과 경관의 연속성, 즉 신체와 세계의 지각적 통합이다. 이러한 참여적 경험은 이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잘 정립되지 않은 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여러 일상 생활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참여는 환경미학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도시경관계획의 한 모형이 될 수 있다. 물론 실제의 도시설계나 도시경관계획에서 참여의 미학이 반영된 경우를 서구 산업사회에서는 찾아 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동양의 정원과 도시계획에서 참여적 미적 경험의 범례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참여적 경관은 파노라마 경관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의 양상을 강조한다. 인간과 경관 사이의 연속성과 일상성에 비중을 두는 것이다. 파노라마 경관과 참여적 경관의 차이는 두 경관의 공간 사용에서 잘 드러난다. 참여적 경관에서 공간은 관찰자에게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서의 지각자를 포용하는 것으로, 인간은 그러한 공간 밖에서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안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참여적 경관은 시각적 반응을 야기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감각이 동원되는 공감각적 반응을 이끌어 낸

35) 참조.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2).

36) 참조. John Dewey, *Art as Experience* (New York: Allen & Unwin, 1934)

37) 참조. James Gibson, *The Senses Considered as Perceptual Systems* (Boston: Houghton Mifflin, 1966).

38) Maurice Merleau-Ponty, "Eye and Mind," in *The Primacy of Perception*, J. M. Edie, ed.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p. 172.

다. 이러한 경험에서는 이동성과 시간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간을 공간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게 하며 이러한 과정 중에 인간의 신체와 그가 지각하는 세계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파노라마 경관과 참여적 경관은 그 주제나 특별한 기술 양식에 따라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양자의 두드러진 차이는 서로 다른 지각 모드에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파노라마 경관은 물적·정신적 거리의 객관성을 전제로 하는 무관심적 관조를 요구한다. 반면 참여적 경관은 파노라마 경관의 아폴로적 사고에 반대하는 디오니소스적 사고를 그 철학으로 삼는 것이다.

참여적 경관은 지역 고유의 물리적·역사적·풍토적 특색을 반영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며, 그러할 때 우리는 지방색이 드러나는 재료, 설계, 유용성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경관은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가치를 미와 연결시키는 기능을 담보할 수 있다. 다름 아닌 미적 장인 것이다. 인간의 실존적 차원을 조명하는 형이상학적 장소로서, 또 일상적이면서도 예기치 않은 활동을 풍부하게 경험하는 기회의 장소로서 우리는 도시경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도시경관의 미적 경험 : 몇 가지 범례

도시경관이라는 미적 장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우리의 경험과 그 계획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기 위해 몇 가지 비유를 동원하기로 한다. 다음에서 제시할 비유와 범례는 쉽게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도시경관의 미적 차원과 그 경험을 조명하기 위해 구상해 본 것이다.³⁹⁾ 이러한 경험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경관은 시민의 다양한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또 도시경관계획이라는 실천적 행위에도 많은 점을 시사해 줄 것이라고 생각

된다.

범선, 서어커스, 성당, 일몰, 우리는 다음에서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 현대 도시경관의 천박함과 단조로움을 대체할 수 있는 사고를 모색하고자 한다. 범선은 완벽한 기능과 빼어난 아름다움이 결합된 인공물로서, 미의 감각과 기능적 유용성의 통합을 통해 어떤 경관에 경험자가 합일되고 참여하는 국면을 시사해 줄 것이다. 극도의 환상과 모험의 세계를 보여주는 서어커스는 분주한 소리와 움직임과 광경이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꿈 속 장면과도 같은 경관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성당은 여러 다양한 예술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의미와 감각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적·정신적 경관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 것도 수평선을 가로막지 않은 곳에서의 일몰은 그 어떤 장면보다도 화려한 빛의 향연이다. 일몰은 일상의 차원에서 벌어지지만 일상을 초월하는 도시경관의 어떤 우주적 경험을 예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 범선과 도시경관

범선에는 물리적 설계 이상의 것이 있다. 한 척의 배는 그것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조타수를, 조타수뿐만 아니라 선장과 항해사와 선원을 필요로 한다. 범선의 기능을 위해서는 선체의 기계적 힘, 물과 바람, 돛과 밧줄, 항해자의 운항 지침 등이 모두 종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감각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적 과정에 온몸으로 몰입하는 일은 전문 항해인에게는 필수적인 일이고 요트 애호가에게는 큰 기쁨이다. 선박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곧 미적 행위인 것이다. 항해자는 구름과 바람과 수면의 변화 징후를 눈과 귀와 코와 피부로 감지해야 한다. 범선은 공감각을 요청하는 기능적 장인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장으로서의 환경은 듀이가 말한 "의미와 연속성, 과정과 산물, 수단적인 것과

39) 비유의 몇 부분은 벌리언트의 책에서 빌어 온 것이다. 참조.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5장.

완성적인 것간의 관계”의 결합을 보여주며, “양자가 대안이나 대체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그 어떤 행위, 곧 예술”이 된다.

이같은 기능적 장으로 도시를 고려하는 것은 생소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때의 기능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기술과 공학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시간과 지각 등의 인자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도시경관은 동적 과정에 있지 정지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범선이라는 기능적 모델은 도시경관의 기능이 인간 행태의 요구에 반응하는 구조적 차원 외에 감각적 차원도 만족시켜야 함을 시사해 준다. 또 그러한 감각은 시각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감각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함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도시경관계획은 대상의 시각적 배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각적 경험의 연속성을 창조하고 지각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어렵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

(2) 서어커스와 도시경관

서어커스에는 범선의 경우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실용성이 전혀 없다. 우리를 어린아이 같게 하는 광경이, 환상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 서어커스가 창조하는 환상의 영역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충격을 주며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흥미를 자극한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서어커스 자체는 물론 그 주변과 이면의 여러 경험이 통합된 것이다. 천막을 치는 사람, 행상, 서로 미는 입장객, 군중의 폭소, 동물의 포효, 이 모두가 축재 광경의 일부가 되어 다가오는 것이다. 서어커스장은 현대의 도시 내에서 원시적인 것이 허용되는 몇 안되는 장소 중 하나이며, 우리는 비난을 의식하지 않고 불가사의함과 기괴함과 공포감에 황홀하게 빠져들 수 있다.

도시가 인간에게 적합한 거주지가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기능적 요구뿐만 아니라 문화적 필요 또한 만족시켜야 한다. 서어커스를 예로 들어 보인 환상적 도시경관은 이상한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상상 속의 것 등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유형의 경험은 주로 미술

관, 영화관, 서점, 연주장, 놀이공간 등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소수만이 이용 가능한 배타적 경험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도시경관은 이러한 경험을 도시, 또 도시의 얼굴인 도시경관, 바로 그 일상의 현장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일 수 있다. 서어커스가 예증하는 환상적 경험은 도시경관의 영역에서도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3) 성당과 도시경관

성당은 기능적 환경인 범선이나 환상적 환경인 서어커스와는 달리, 형이상학적인 상상의 환경, 곧 물리적·사회적·영적 표명을 통해 신과의 영적 교섭을 제공해 주는 환경이다. 높이 솟은 고딕 성당의 첨탑은 인공의 산이다. 그것은 밖에서도 오를 수 있고 안에서도 오를 수 있으며 영혼으로도 오를 수 있고 육체로도 오를 수 있는 산이다. 성당은 내부 공간일 뿐만 아니라 총체적 환경이다. 그것은 모든 감각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참여하지 않는 신자는 허용하지 않는 환경이다. 또 성당은 멀티미디어 환경의 원조이다. 시각적인 면에서 보자면 성당은 어둠으로 뒤덮인 공간을 한줄기 햇빛과 양초의 광휘가 관통하는 곳이다. 수많은 손이 스쳐간 좌석의 나뭇결에서부터 많은 발이 지나가 닳은 마루의 울퉁불퉁함에 이르기까지 성당의 경험은 촉각 또한 필요로 한다. 찬미의 목소리와 성가대의 노래소리, 오르간의 음폭은 청각과 공간의 만남을 필요로 한다. 빵과 포도주, 그리고 향의 은은한 냄새는 후각을 성당의 경험에 참여시킨다. 하지만 감각만으로는 성당의 경험이 충족되지 않는다. 성당은 영혼의 보고이며 상징의 장이기도 한 것이다.

성당은 도시경관의 미적 경험과 계획에 또 다른 함의를 제공한다. 도시경관의 계획가는 어떤 한 세계의 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가시적 표현을 창조해 낼 수 있어야 함을 성당은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 세계의 기반이 성에서 속으로 전이함에 따라 성당의 기념비성은 마천루의 기념비성으로 대체된지 이미 오래이다. 강철과 콘크리트와 유리의 마천루는 영혼과 도덕적 의

미의 상승을 기도했던 성당과는 달리 돈과 권력과 무표정함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우리의 도시경관에 마천루가 필요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마천루를 우리의 미적 장 내에 참여시킬 수 있는, 또 우리를 도시경관에 개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흔히 '장소성'이라고 불리는 개념과 교집합을 지닐 것이다.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우리의 관조를 강요하는 도시경관을 우리가 공감각과 상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도시경관으로 회복시켜야 할 과제가 도시경관계획에 놓여 있다.

(4) 일몰과 도시경관

일몰의 경험은 우주적 환경의 경험이다. 그것은 지는 태양을 관찰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일몰을 통해 인간은 빛의 향연 속에 펼쳐지는 자연의 확장성을 경험하게 된다. 빛이 수평선 위에서 수평선 아래로 흘러가고 곧 밤하늘이 찾아듦에 따라, 그 색은 황금빛에서 시작하여 장미빛으로 변하다가 연보라빛을 거쳐 자회색으로, 중국에는 무정한 섬광으로 바뀌어 간다. 우리는 일몰 앞에서 시간의 영겁과, 별의 공간과, 우주의 움직임과 결합한다. 신의 존재가 우리를 숙연하게 하며, 우주의 존재가 우리를 압도한다.

일몰의 예증은 일몰 과정 중의 저항할 수 없는 연속성이 인간의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즉 일몰은 도시경관이란 자족적이지도 않고 독립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용하는 도시와 그 경관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시경관을 자연환경과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는 또한 도시경관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우리의 삶과 그 거처를 파악할 때 도시경관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물론 우리가 본 연구를 통해 계속 견지해 왔던 입장을 범선, 서어커스, 성당, 일몰의 비유

를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범례만이 새로운 도시경관의 계획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는 경험 주체와 대상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미적 장으로서의 도시경관을 예증해 보고자 한 것이다.

4) 도시경관의 정체성과 쾌적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일단 우리가 말하는 미학적 사고에 기반한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은 그 면모를 충분히 드러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하자. 아름다운 도시경관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도시경관이 아름다운가? 이 물음에는 아주 쉬운 정답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누가 보았을 때 아름다운 것인가, 어디에서 보았을 때 아름다운 것인가, 언제 보았을 때 아름다운 것인가 등등 결코 쉽지 않은 의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무엇인가? 이 의문은 수세기에 걸친 미학 이론과 예술론이 마련해 온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과 일면 유사하다. 플라톤 이래로 많은 주장의 부침이 있어 왔지만 20세기의 분석미학은 예술이라 불리는 것들 간에는 어떤 고유한 공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유사성이 있을 뿐이라고 파악하여 결국 '예술정의 불가론'이 힘을 얻게 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항해 예술의 정의 가능성을 주장한 조지 디키의 이론을 따르자면, "(1)인공성(artificiality)과 (2)예술계(artworld), 즉 예술이 몸담고 있는 광범한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 또는 관례"를 필요충분조건으로 갖추면 어떤 대상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⁴⁰⁾ 디키의 견해를 따르자면 예술이란 '인공성'이라는 필요조건과 관례에 의해 '수여된 자격'이라는 충분조건에 의해 비예술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론은 도시경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떤 도시경관을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되게 하는, 예술의 예술계에 해당하는 하는 관례는 무엇일까? ⁴¹⁾ 경주와 같은 고대 도시나 플로렌스와 같은 중세 도시는 기능주의의 기치를 내건 근대 도시의 전형인 뉴욕이나 시카고와는 달리 이상과 인간중심적 분위기를 간직한 도시경관의 좋은 사례이다. 분명 이들 사례는 전혀 상이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는 각각의 도시에서 아주 다른 경관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도시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전형적 사례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을 아름답다고 여기게 하는 근거, 곧 관례는 무엇일까? 물론 그러한 근거는 도시경관의 물리적 구조나 그 구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인상 또는 기능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관례의 일면을 앞에서 논의했던 미적 장과 참여 개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경관이라는 미적 장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곧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장하는 근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도시경관계획은 그러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달성하는 구체적 행위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개념으로 '정체성'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경주,

플로렌스, 시카고, 뉴욕 등의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여기게 하는 관례는 각 도시들을 그 도시답게 만드는 성질, 즉 정체성에 있다는 논리가 가능한 것이다.

정체성(正體性)은 영어 identity를 번역한 말로서, 그 어원은 라틴어인 *identitas*, *identicus*이며 '동일하다'는 뜻의 *idem*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OO에 정체성 있다는 말은 곧 OO는 OO답다는 뜻이다. 정체성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국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동일성(sameness)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성(individuality, oneness)이다. 전자는 'OO와 같은 정체성(identity with)'이라는 의미의 정체성이고, 후자는 'OO의 정체성(identity of)'이라는 의미의 정체성이다. ⁴²⁾ 따라서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이란 그 도시다운 경관인 동시에 다른 도시보다 뛰어난 경관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정체성은 도시경관이라는 대상(객체)의 성질이다. 도시경관의 미적 경험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해서는, 주체와 객체의 합일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비추어 보면 정체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자이자 수용자인 인간 주체의 관점을 반영하는 '쾌적성'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쾌적성은 영어 amenity를 번역한 말로서,

40) 참조. George Dickie, *Aesthetics: An Introduction (Pegasus, 1971)* ; *Art and the Aesthetic* (Cornell Univ. Press, 1974).

41) 이에 대한 논의의 발판은 다음 논문에서 마련된 바 있다. 조정송, "제도로서의 예술과 환경," 『한국조경학회지』 13(1), 1985, pp. 91-98.

42) 참조. 황기원,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회복과 조경의 과제를 위한 세미나 논문집』, 한국조경학회 편, 1995, pp. 1-13. 이 논문은 도시 정체성의 개념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도시는 "그" 도시답다(동일성).

1-1) 그 도시답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연속성).

1-2) 그 도시에 사는 한 개인인 나는 그 도시와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진다(투입에 의한 동일화)

1-3) 그 도시에 사는 한 개인인 나는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진다(정합에 의한 동일화)

2) 도시는 그 도시다운 뿐 아니라 다른 도시와 다르고 더 낫다(개별성).

2-1)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다(특이성에 의한 개별성).

2-2)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면서 그 무언가 뛰어나야 한다(수월성에 의한 개별성)

2-2-1) 다른 도시에도 있는 공동 요소(예; 공원, 가로)를 비교해 볼 때 더 낫다.

2-2-2) 다른 도시에는 없는 고유 요소(예; 문화제, 바다)가 있어 더 낫다.

그 어원은 라틴어 *amoenitas*이며 이는 *pleasant*와 *delightful*의 뜻을 담고 있다. 영어 *amenity*의 사전적 어의는 1) 유쾌성 (*pleasant*), 매력성 (*attractiveness*), 2) 장소나 기후 등의 매력적이거나 바람직한 국면 (*attractive or desirable features, as of a place, climate, etc.*), 3) 예절바른 행동 (*courteous acts; civilities*) 정도로 요약된다. 3)은 본 연구의 논제와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고 1)과 2) 위주로 쾌적성의 개념을 고찰해 보면, 쾌적성은 결국 환경의 높은 질, 그것이 주는 매력, 그러한 매력을 느끼기 위한 수용자의 감수성, 주체와 객체의 합일과 어울림 등이 포괄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정체성과 쾌적성은 독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하는 개념이며 각각을 서로 필요충분조건으로 삼는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최근 도시경관 관련 사업에서 정체성과 쾌적성이 중요한 이슈로 제시되고 있음은 물론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전시적 효과를 위한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체성과 쾌적성이 도시경관의 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계획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밑바탕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한국 도시경관의 정체성과 쾌적성은 경관을 경험 주체와 분리시키고 시각적·물리적 형태와 구조만을 강조하는 서구 모더니티의 관례로 해석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경관에 내재된,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관례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러한 관례에 바탕한 정체성과 쾌적성은 미적 장으로서의 도시경관과 그러한 장에서의 참여적 미적 경험이라는 우리의 화두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논의는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미적 장, 참여적 미적 경험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삼고 정체성과 쾌적성 개념을 단초로 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함으로써 한국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을 미학적 사고 속에서 구상해 보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에 마침표를 찍는 순서로 이어진다.

5. 결론 : 아름다운 도시경관

‘아름답다’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보고 듣는 대상이 마음에 들어 감각이나 감정에 기쁨이나 만족을 줄 만하다,” 그리고 “마음에 들만큼 훌륭하고 가름하다”고 풀이된다. 이 때 ‘훌륭하다’는 말은 “나무랄 데가 없다”는 뜻이며, 나무랄 데가 없으면 “마음에 들기” 때문이고 그러하므로 “칭찬할 만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풀이는 결국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쾌적성’의 뜻과 다름없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름답다’는 말에 숨은 뜻을 찾아 보자. 이 말에서 접미사인 ‘~답다’를 떼어 내면 ‘아름’이 남는데, 이 ‘아름’의 뜻은 다음의 세 가지로 풀이된다.

우선 ‘아름’은 두 팔로써 겨안은 어떤 물체의 둘레 길이이다. ‘아름드리 소나무’는 그 둘레를 두 팔로 겨안아도 남는, ‘아름 차게 굵은 소나무’이다. 이 ‘아름’이라는 말은 ‘안다’ (抱), ‘겨안다’ 등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 썸이다. 그러므로 ‘아름답다’는 말은 ‘아름과 같다’, ‘아름만큼 굵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두 팔로 대상을 겨안게 되면 그 대상의 크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으니 ‘아름’은 곧 ‘알음’ (知)과 통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두 팔로 겨안았으므로 그 대상은 내 품안에 들어온다. 내 품안에 들어오게 된 대상은 나의 것이기도 하고, 나만이 아는 것이기도 하다.

‘아름’의 옛말 ‘아름’은 ‘나’ (私)이니, ‘아름답다’라는 말은 또 나와 같다는 뜻이 된다. 국문학자 양주동 또한 아름다움의 어원을 고어 ‘아름답’에서 찾은 바 있다. 이 ‘아름답’에서 ‘아름’은 본래 ‘私’의 옛 뜻인 이두문의 ‘아름더’ (私)이며, ‘답’은 ‘같다’ (如)이다. 따라서 ‘아름답’은 ‘곳답’, ‘사름답’, ‘스나히답’ 등의 경우

와 그 구성이 동일한 것이며, 원래의 뜻은 ‘如有私好’이고 이와 함께 ‘美’의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⁴³⁾ 그러므로 “‘아름다움’의 느낌은 자기의 미 의식에 맞는 자기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또는 대상에서) 자기 즉 각자(私)와 같을 때 (또는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⁴⁾ 바로 여기서 아름다움은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정체성’과 연결된다.

이처럼 안음으로써(抱) 대상을 나 나름대로(私) 잘 알게 되면(知), 그 대상은 내 품에 들어와서 포근하고 ấm으로써 친숙하니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꼭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대상은 상찬할 만한 수준의 질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이 다가가서 내 품에 그 대상을 안게 된다. 이와 같이 내가 대상을 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대상에 안기는 것이며, 결국 나와 대상이, 주체와 객체가 서로 안는 것이다. 또 서로 안음으로써 나와 대상은 서로 잘 알게 된다. 나와 대상은 서로 잘 앎으로써 하나인 내가 된다. 이는 다름 아닌 쾌적성을 통한 정체성의 본질, 즉 아름다움이다.

그러므로 정체성과 쾌적성이 구현된 도시경관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이다. 바꿔 말하자면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객체와 주체의 상호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관이며, 그러한 소통의 장에 주체와 객체가 상호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경관인 것이다. 이러한 도시경관은 곧 미적 장이며, 그러한 미적 장에서의 미적 경험은 참여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미적 측면에서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파라다임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서구의 모더니티 프로젝트가 낳은 주객이원론과 소외를 극복하고 한국의 고유한 도시경관을 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이자 실천적 이론일 수 있다.

인용문헌

- Aschenbrenner, K. (1975) "The Coming of Supremacy of the Aesthetic," *Diogenes* 50, p.41.
- Basch, D. (1972) "The Uses of Aesthetics in Planning: A Critical Review,"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6(3): 39-55.
- Beardsley, M. C. (1960) *Aesthetics from Classical Greece to the Present: A Short History*, The Univ. of Alabama Press, ch.12.
- Berleant, A. (1970) *Aesthetic Field*,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 _____ (1991) *Art and Engagement*,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 _____ (1992)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 _____ (1997) *Living in the Landscape: Toward an Aesthetics of Environment*,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 Berque, A. (1993) "Toward a Theory of the Environmental World," *Spazio e Societa* 64: 32-43.
- Bourassa, S. C. (1991) *The Aesthetics of Landscape*, London: Belhaven Press.
- Burchard, J. E. (1957) "The Urban Aesthetic,"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 Social Sciences*, Nov.: 112-22.
- Crandell, G. (1993) *Nature Pictorialized "The View" in Landscape Hist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Allen & Unwin.
- Dickie, G. (1971) *Aesthetics: An Introduction*, Pegasus.
- _____ (1974) *Art and the Aesthetic*, Cornell Univ. Press.
- Evensen, N. (1981) "The City as an Artifact: Building Control in Modern Paris," in *Planning for Conservation*, Roger Kain, ed., London: Mansell, pp.177-98.
- Forman, R. T. T. & M. Godron (1986) *Landscape Ec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Gibson, J. (1966) *The Senses Considered as Perceptual Systems*, Boston: Houghton Mifflin.
- Hirsch, E. (1995) "Landscape: Between Place and Space," in *The Anthropology of Landscape*, E. Hirsch and M. O'Hanlon, eds., Oxford: Clarendon Press, pp.1-30.
- Jones, B. (1960) "A Prolegomena to a Study of the

43) 양주동, 『古歌연구』 3판 (서울: 일조각, 1969), pp.110-11.

44) 백기수, 『미학개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4), p.35.

- Aesthetic Effect of Cities,"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18(4) : 419-29.
- Merleau-Ponty, M. (196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_____ (1964) "Eye and Mind," in *The Primacy of Perception*, J. M. Edie, ed., Northwestern Univ. Press.
- Mikesell, M. W. (1968) "Landscape,"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III : 575-80.
- Punter, J. (1987) "A History of Aesthetic Control: Part 2, 1953 1985," *Town Planning Review* 57(1) : 29-62.
- Rader, M. & B. Jessup (1976) "Art and the Environment," in *Art and Human Valu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pp. 372-85.
- Sitte, C. (1945) *The Art of Building Cities, City Planning According to Artistic Principle*, trans. Charles T. Stewart, New York: Reinhold.
- Tuan, Y.-F. (1974) *Topophilia*,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Whittick, A. (1981) "The Aesthetic Control of the Environment,"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21(3) : 261-67.
- Williams, S. H. (1954) "Urban Aesthetics: An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ities," *Town Planning Review* 28(2) : 95-113.
- Wilson, W. H. (1986) *The City Beautiful Movement*,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今道友信 (1990) "都市の美學," 『講座美學5 : 美學の將來』, 今道友信 編, 東京: 東京大學校 出版會, pp. 47-65.
- 東京都 (1992) 『都市美 Guideline』.
- 名古屋市 (1987) 『Urban Design: 名古屋市 都市景觀基本計劃』.
- 柏市 (1992) 『栢市都市景觀基本計劃』.
- 김문환 (1994) "환경미학의 이론적 과제: 자연미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실』 22호 : 266-77.
- 김성준 (1994)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주식 (1993) "도시환경의 미학," 『미학』 18집 : 45-46.
- 배정환 (1996) "환경미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1960년대 이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예술문화연구』 6집 : 103-30.
- 백기수 (1974) 『미학개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94)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I, II』, 시정연 93-R-8, 94-R-2.
- 손방 (1994) "도시경관의 미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산시 (1990) 『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
- 양주동 (1969) 『古歌연구』, 3판, 서울: 일조각.
- 오병남 (1973) "현대예술의 성격과 미적 경험에 관한 연구," 『민병태 박사 화갑기념논총』.
- 임승빈 (1995) "도시경관 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책성 회복과 조경의 과제를 위한 세미나 논문집』, 한국조경학회 편, pp. 25-38.
- 임승빈·박창석·김성준 (1995)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0(1) : 325-47.
- 조정송 (1985) "제도로서의 예술과 환경," 『한국조경학회지』 13(1) : 91-98.
- 조정송 (1995) "환경설계와 미학: 그 오늘과 내일," 『터전』 3 : 44-47.
- 조정송·배정환 (1994) "환경미학과 '참여' 개념의 문제," 『미학』 19집 : 225-59.
- 황기원 (1989)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17(1) : 55-68.
- 황기원 (1993) "도시경관과 도시계획," 『한국조경학회지』 21(3) : 117-21.
- 황기원 (1995)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책성 회복과 조경의 과제를 위한 세미나 논문집』, 한국조경학회 편, pp. 1-13.
- 황기원·유병립·이민우 (1993) "한국 향만도시의 도시경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4), pp. 76-92.